

[프록터 앤 갬블] 프리미엄 웰니스 브랜드 Thorne 인수 발표 - 정체된 Health Care 카테고리의 프리미엄화 시도



26.08.05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핵심 요약

- P&G, 프리미엄 웰니스 브랜드 Thorne 인수 발표
- 금액·조건 미공개, Health Care 부진 만회 포석
- FY27 가이드선 영향은 세부조건 공개 이후 판단

제주리카르 CEO가 CNBC 인터뷰에서 프리미엄 웰니스·보충제 브랜드 Thorne 인수를 공식화했다. 거래 금액이나 종결 시점, Thorne의 매출 규모 등 구체 조건은 이번 인터뷰 발언에 담기지 않아 본 입력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P&G는 FY26을 매출 870억 달러(+3%), 코어 주당순이익 6.89달러로 가이드선 하단 근처에서 마감했고, 포트폴리오 내에서 Beauty(유기적 +4%)만 뚜렷한 성장 엔진으로 남아 있는 반면 Health Care는 -1%, Baby·Feminine·Family Care는 -2%로 부진했다. 이런 구도에서 프리미엄 웰니스 브랜드 인수는 정체된 Health Care 카테고리에 고마진·고성장 축을 더하려는 포트폴리오 재편 시도로 읽힌다. Beauty에서 이미 확인된 '프리미엄화가 성장을 만든다'는 공식을 웰니스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포석에 가깝다.

다만 인수 하나로 FY27 가이드선(유기적 +1~3%, 코어 주당순이익 중간값 7.00달러)의 방향이 즉시 바뀌지는 않는다. 원자재·에너지·물류에서 이어지는 10억 달러 규모의 역풍과 순이자·비영업·환율 부담(주당 0.56달러, -8%)은 여전히 구조적 제약으로 남아 있고, Thorne의 매출 기여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전사 성장률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이르다. 밀러 회장 퇴임 이후 제주리카르가 의장까지 겸임하는 리더십 전환기에 나온 이번 발표는, 새 경영진이 M&A를 통한 성장 재가속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밸류에이션은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 21.1배로 5년 평균 대비 여전히 할인돼 있어, 이번 인수 자체보다는 향후 공개될 거래 조건과 Thorne의 매출 기여 규모가 프리미엄 회복의 실질적 트리거가 될지가 관건이다.

앞으로는 인수 금액과 종결 시점, Thorne의 매출·마진 프로파일 구체적으로 공개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Health Care 카테고리의 유기적 성장률 반등으로 실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재무 요약 (I/B/E/S 컨센서스)

항목	FY Jun-25	FY Jun-26	FY Jun-27 (E)	FY Jun-28 (E)	FY Jun-29 (E)
매출 (Revenue)	84.28	87.03	88.96	91.43	94.50
↘ 증가율	0.29%	3.26%	2.22%	2.77%	3.36%
매출총이익	43.10	43.67	44.84	46.55	47.88
↘ 마진	51.14%	50.18%	50.41%	50.92%	50.67%
EBITDA	23.30	23.66	24.40	25.62	26.90
↘ 마진	27.65%	27.18%	27.43%	28.02%	28.47%
영업이익 (EBIT)	20.46	20.50	21.00	22.20	23.18
↘ 마진	24.27%	23.55%	23.61%	24.28%	24.53%
순이익	16.77	16.69	16.86	17.62	18.58
↘ 마진	19.90%	19.17%	18.95%	19.28%	19.66%
EPS	6.83	6.89	7.02	7.41	7.81
↘ 증가율	3.64%	0.88%	1.89%	5.61%	5.31%
잉여현금흐름 (FCF)	14.04	15.15	15.54	16.97	11.76
P/E	24.5x	22.1x	20.6x	19.6x	18.6x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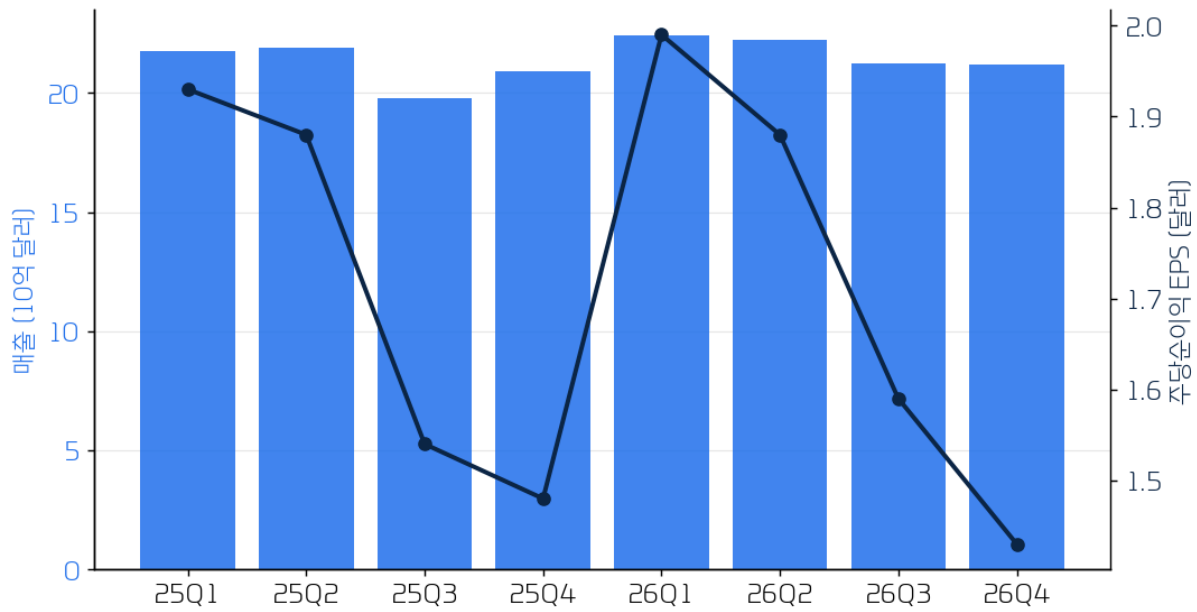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YoY, 단위는 십억 USD

참고 차트

PG 주가·12개월 선행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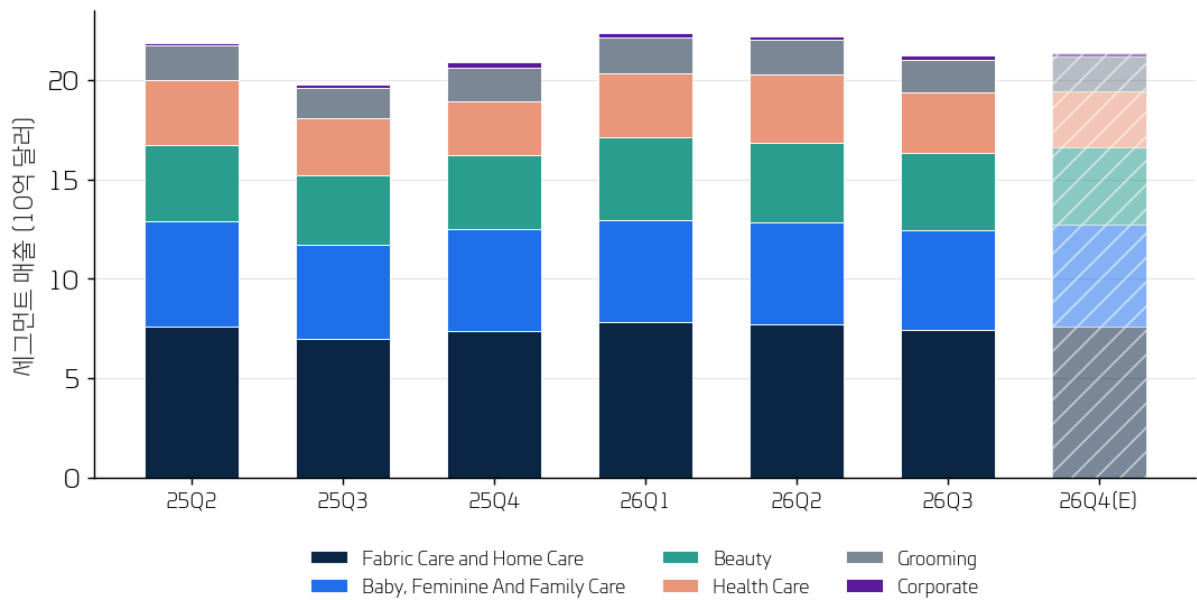


PG 분기 매출·주당순이익(EPS) 과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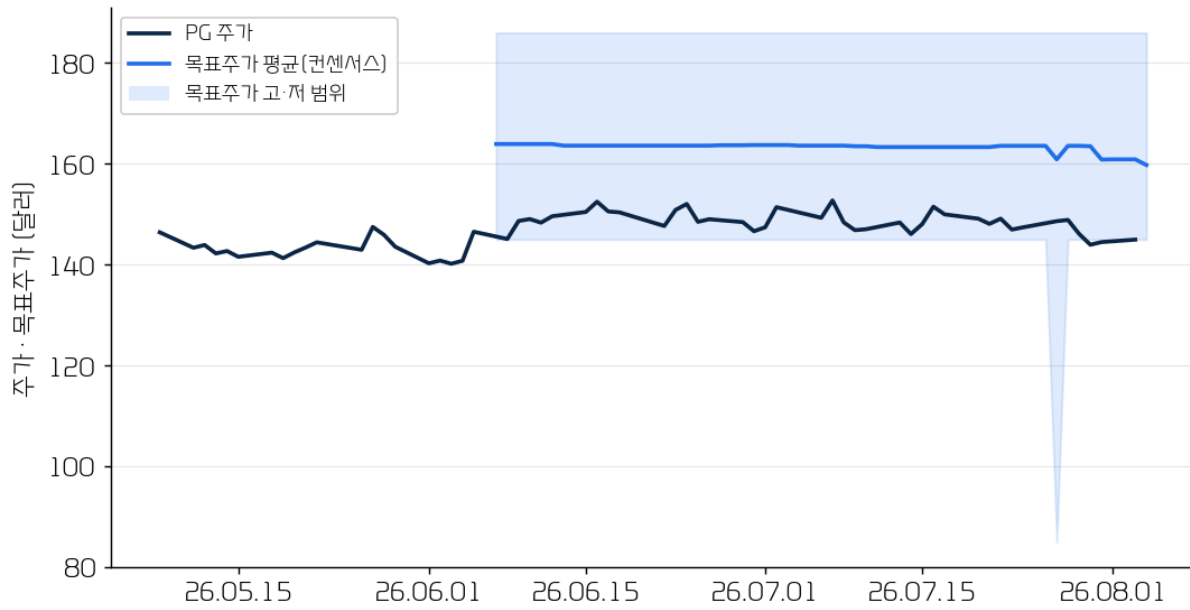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PG 세그먼트 매출 구성(사업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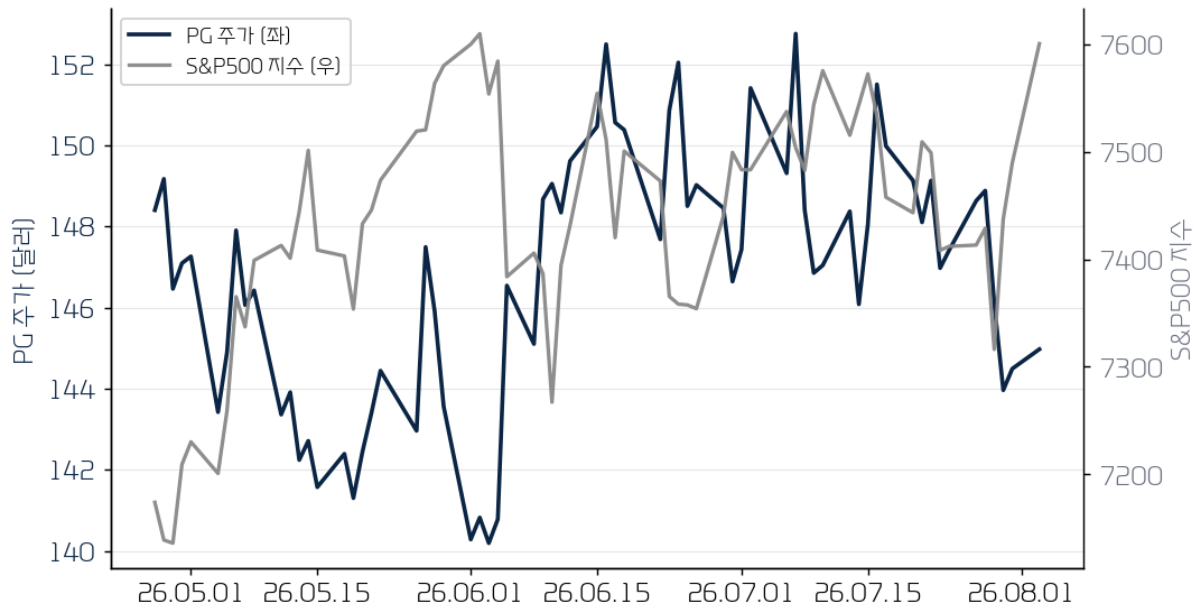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PG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PG 주가 vs S&P500 (최근 90 일)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조재운)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